

스포츠 선교의 나아갈 방향성과 환대선교

현한나*

논문초록

스포츠 선교에 대한 필요성은 20세기 후반 이후 한국 선교 안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되어 왔다. 첫 번째는 스포츠 선교의 필요성에 관한 관점에서 스포츠 선교가 복음 전파의 통로로서 선교적 방법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진다는 점으로, 스포츠 선교가 감당할 수 있는 선교적 역할에 대한 강조이다. 두 번째는 스포츠 선교가 가진 선교적 영향력과 성과에 주목하는 방안이다. 1988년올림픽 개최 이후 선수촌을 중심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리는 동시에 세계적으로 스포츠를 통한 외교력을 발휘하여, 한국 교회의 선교적 운동력을 시대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던데 연유한다. 세 번째는 ‘스포츠’를 인류 공통의 언어 혹은 보편적 매개체라고 보는 관점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스포츠 선교의 타문화권 접근성에 있어서의 수월성에 초점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선교는 ‘미완성된 선교의 그림’ 혹은 ‘이슬람권을 비롯한 미전도된 종족’에 대한 시대적 사명 완수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되어 왔다. 위와 같이 스포츠 선교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논의들은 스포츠 선교를 선교의 효과적 수단이나 혹은 복음 전도를 위한 목적을 위한 방법론의 한 측면으로만 이해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놀이’라는 측면에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선교라는 큰 틀 안에서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하여 스포츠 선교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학문적 재정립이 필요함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복음과 문화에 대한 동떨어진 이해를 좀 더 좁히고, 스포츠가 선교의 수단이 아니라 인류 본연의 놀이로써 한 언어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강화 하려한다. 이 글에서는 스포츠가 가진 경쟁적 측면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선교사 중심적일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타자를 통한, 타자의 얼굴을 통해 바라본 스포츠 선교적 윤리의 틀을 세우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전통적 선교방법론에 있어서 선교사가 현지인에게 일방적이거나, 전달자가 수용자를 향해 선별하고 초대하여 복음을 전달했던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 대해 강조하면서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환대의 선교, 섬김의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개진하려고 한다.

주제어 : 스포츠선교, 환대선교, 난민선교, 디아스포라, 타자윤리

* Sydney College of Divinity(시드니신학대학교) 선교학과 교수
2016년 10월 18일 접수, 11월 28일 최종수정, 12월 8일 게재확정

1. 스포츠 선교의 목적에 대한 재조명과 과거 성과들¹⁾

19세기와 20세기 초반까지 하더라도 기독교 내에는 영성에 대한 좁은 이해를 바탕으로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두 영역의 구별 가운데 기독교 문화의 한 부분으로 스포츠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기독교적 활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다(조규청, 2007:344). 이것은 청교도적 전통과도 같은 맥락을 있는데, 엄격한 안식일에 대한 엄수와 율법에 대한 회귀는 곧 놀이에 대한 부인과 금기시 되는 태도로 이어졌고, 일에 대한 휴식은 있지만 적극적인 놀이 활동과 문화적 활동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는 태도들이 운동이나 춤 등의 움직임의 예술 활동들을 터부시하였던 배경이 되었다(김옥태, 2002:43). 이러한 기독교문화를 개별화하며 세상과 구분하던 행위들은 스포츠를 기독교적 가치관과 패러다임의 범주에서 실현하려는 노력들을 더디게 하였고, 교회 안으로 스포츠 문화들을 가져와 스포츠라는 매개체를 통한 선교의 새로운 시도들을 지연시켰다고 평가된다(조규청, 1998: 83). 오히려 스포츠를 세상에 속하는 영역으로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내려놓고, 스포츠를 통한 교회의 바람직한 문화 형성과 스포츠라는 매체를 통하여 교회가 다양한 문화권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이용하려는 태도는 최근에와서야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스포츠와 선교를 하나로 묶어 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향한 도구로서 혹은 매개체로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가 가진 장점에 대해 눈을 뜨면서 이것을 복음전도와 선교라는 사명 아래 접목하게 된 사례는 20세기 후반이다. FCA(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들이 1980년대 올림픽 선수촌에 제자훈련을 도입하였으며,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 개최 이후 선수촌을 중심으로 복음화를 위한 선교적 움직임들이 활발히 시작되었다고 본다(허성업, 1998: 95). 한국은 올림픽 개최와 같은 세계적인 대회들을 성공적으로 이룸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세계선교의 소명국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종교와 문화적 가치가 다른 타문화권에 대한 선교를 스포츠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다는 새로운 선교적 도전 아래 스포

1) 본 논문은 필자가 호주 시드니에서 2016년 5월 3-8일 동안, 세계 스포츠 선교회 호주지부를 주최로 열린 World Mission Conference 세계 선교 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학술 논문 형식으로 갖추어서 투고하였음을 밝힌다.

츠를 통한 다양한 선교적 접근과 시도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미래적인 기대와 비전이 스포츠 선교를 활성화 하게한 원동력이 되었다.

기독교 내에서 이러한 대내외적인 스포츠 경기들이 복음이 접근해가는 문화의 지평을 넓히고 선교의 기회를 확대해가는 좋은 통로들로 인식되면서 스포츠에 대한 장점들이 연구되고 기독교 학계에서 스포츠 선교를 문화 선교의 한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이에 대한 글들이 서술되기 시작하였다. 스포츠가 가진 상업성과 자본주의 안에서 변질될 수 있는 강한 경쟁의식으로 비롯된 프로 스포츠세계의 어두운 면들에 대해서 염두 하기보다는 스포츠가 가진 긍정적 측면들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스포츠는 세계 여러 나라를 통틀어 다른 언어권을 하나 되게 하며,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 지구적인 교제권을 넓히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무엇보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과 같은 경기들을 함께 치러 내면서 스포츠는 전 세계에 다양한 민족과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는데 문을 활짝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참여한 선수들과 심판원들, 지역의 주민들과 관중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각층의 사람들이 공통된 목적성을 가지고 함께 화해하고 연대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인류 평등애와 화해 등을 실현하였다고 평가되었다(이완택, 1991:2).

뿐만 아니라 스포츠 선교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신 복음 전도과업을 이루기 위한 매개체로서 이해되면서 “선교를 위한 좋은 미끼”로서 이해되기도 하였다(허성업, 1998: 94). 스포츠는 복음이 전해지기 어렵고, 선교사가 들어가기 어려운 타문화권의 장벽을 쉽게 넘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에 선교에 있어서 도구적으로 활용도가 크다고 평가된 것이다. 세계 남은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 하기 위해 교파나 단체를 초월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중복과 경쟁이라는 선교의 단적 측면들을 피해 나가며 전 세계 복음화를 이뤄야한다는 점에서 스포츠 선교는 연합과 협력 선교를 도울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있어왔다(이정기, 2012:189).

그리고 국내에서도 스포츠는 세계복음화 뿐 아니라 지역의 영세민이나 청소년 비행 문제 등 국내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탈출구로서 역할 또한 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활발한 사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한국스포츠선교회에서 주최하는 “스포츠선교축구단” 사역이나 북한 귀순자들과 함께 하는 “형제 축구단” 등은 스포츠가 사회 문제와 지역 내 해결 되지 않는 계층 간의 갈등 또한 해소해주는 역할을 한 사

레들이 된다. 따라서 국내 학계에서도 스포츠 선교에 대한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스포츠 선교에 대한 반론이나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스포츠가 21세기 선교에서 당연하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인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본다(강재원, 2013:202).

그러나 스포츠 선교가 21세기까지 미완성해온 선교적 남은 과제를 해결하고, 세계 교회의 진정한 에큐메니컬적 시도를 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 대답은 스포츠 선교 또한 헤게모니 혹은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선교학의 시종이 될 수밖에 없고, 선교적 본질에 대한 성찰과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 없는 스포츠 선교는 또 하나의 미완성된 선교적방법론에 그칠 뿐이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선교는 지난 수십년간 사회봉사적, 세계선교적 과제들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애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학계에서 더 큰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그 사역의 의미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그렇다면 스포츠는 선교에서 분리되거나 독립되어야한다는 의미인가? 그것이 아니라 선교의 방향성에 대한 바른 확인과 재정립과 함께 스포츠 또한 선교와 동등선상에서 파트너십을 이루도록 스포츠 선교만의 충분히 특성을 드러내는 사역에 집중해야한다는 것이다.

II. 스포츠가 가진 본질적 특성 - ‘놀이’

스포츠는 인간의 본능에서부터 소생되는 즐거움과 희열을 경험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즐거운 활동체계 곧 움직임의 예술이다. 이것을 통해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함과 동시에 남녀노소와 연령, 인종의 차별없이 누구나 즐기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유한 정신문화를 이룰 수 있다. 자신의 재능과 개성을 발휘하며,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고, 개인적 만족감과 성공감, 가능성에 도전, 기대감, 인내와 노력에 의한 성취감 등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표현이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조규청, 2007: 347-8).

스포츠의 이러한 정신적 즐거움과 기쁨의 기원을 놀이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라틴어의 “plaga” 갈증이란 단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동물들이 마치 목이 마를 때에 자연스럽게 물을 찾아 헤매듯이 인간 내면에 갈증처럼 자리잡은 본성적인행동들이 스

포츠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이것은 멍하게 수동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태와 정반대로 동물들이 목마를 때에 적극적으로 물을 마시러 찾듯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따라서 ‘스포츠하다.’ ‘play sports’란 단어는 인류의 활동적이고, 지적이고 능동적인 활동과 행위들을 통틀어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스포츠는 생존이란 필요에 사로잡혀 억지로 일을 하거나 수동적으로 행위하는 것과는 반대된다.

인류의 이러한 갈등의 기원을 호이징아(Huizinga)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 (Huizinga 1998:2)라고 표현하였는데 즉 인류는 놀이를 위해 지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이것을 성서적으로 다시 해석해 낸다면 인류는 수동적으로 일을 하도록 지어졌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놀이거리를 찾아 새로운 재창조(recreation)를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스포츠가 인류의 놀이가 되고, 이러한 인간의 놀이들은 또한 다양한 고유의 문화들을 만들어 내는 기반이 되었는데 놀이를 통해 인류문명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호이징아는 이러한 놀이들을 셋으로 구분하였는데, 모의놀이 즉 경쟁에 근거한 놀이, 운에 의한 놀이, 마지막으로 현기증을 일으키는 놀이들이다. 이러한 놀이의 현상적 측면에 대해서 네 가지로 더 심층적으로 분석한 카이와(Caillois)는 놀이를 넷으로 정리하여, 경쟁적 놀이, 모의놀이, 운에 좌우되는 놀이, 현기증을 일으키는 균형감각의 상실을 통한 놀이들로 구분하였다.

경쟁이란 의미의 아곤(Agon)은 달리기와 같은 경주, 축구나 농구, 체스 등과 같은 경기들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승부게임들을 포함하고, 미미크리(Mimicry)는 어린이들이 모방을 통해 배우고 흉내낼 수 있는 놀이들로 인형과 장난감가면들을 통해서 시각적 행위적인 형태로 드러내는 예술 일반이며, 알레아(Alea)는 가위바위보나 손바닥을 앞뒤로 뒤집어 맞추는 등의 확률들을 이용한 놀이들이며, 회전목마나 그네, 공중 곡예와 같은 현기증을 일으키는 일링크스(Ilinx)는 서커스 곡예식의 아슬아슬한 균형 놀이나 활동들이 그 예들이 된다(Caillois, 2006:132-138). 이러한 놀이 중에서 카이와가 말한 아곤 즉 경쟁놀이는 주로 스포츠의 주 종목들이 되는 경기들이며, 이러한 놀이는 카이와에 의하면 타락할 때 규칙을 통해 페어플레이가 되기보다 성공이나 승리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적 논리에 따라 놀이는 경쟁이나 집착, 소유적 측면에만 치우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바로 호이징아나 카이와 모두 놀이 문화가 약화, 타락되는 현상이라 보았고,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경

제구조가 심화된 탓으로 보았다(Huizinga, 1998: 30-31신성환 2009:197).

이렇듯 스포츠가 그 기원적 정신을 놀이와 문화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원에 근거하여 스포츠가 가진 놀이적 특성을 찾아내는 것은 단지 인간의 놀이가 가진 고유한 속성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스포츠가 인류 본연의 놀이적 속성과 기능을 통해 발현된 것이라면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곧 창조 본연의 질서와 인간의 속성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스포츠 선교 또한 초점을 맞추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놀이적 특성의 한계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1. 스포츠와 선교의 본질 회복: 놀이를 통한 ‘안식과 기쁨의 회복’

무엇보다 스포츠 선교가 이 시대에 가질 수 있는 스포츠만의 긍정적 측면은 무엇이 있을까? 스포츠는 근대 선교에 어떠한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은 먼저 놀이 문화의 회복을 통해 일 중독과 소유욕에 이끌려 인간 스스로 소외될 수 있는 환경에서 안식과 기쁨을 찾고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점이다. 앞서 말한 대로 현대인들은 이러한 놀이의 중요성을 상실하고 일에 치우쳐 때로 놀이를 통해 느끼는 기쁨을 외면해 버린다. 무엇보다 우리가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노동해야 하도록 만든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이 지구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스테판 린더(Staffan Linder)가 말하듯이 현대인들은 시간의 기근 가운데 사는 것이다. 소비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여가 활동조차 생산을 위한 혹은 더 많은 소유와 일을 위한 여가가 되면서 여기는 단지 일을 위해 존재할 때 혹은 생산성과 관련될 때에 가치 있다고 여겨지고 쉴 때조차도 그것이 생산성과이익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려하게 된 것이 자본주의의 폐단적 측면이다(Linder, 1970). 따라서 21세기는 제대로 된 성경적 놀이문화, 스포츠 문화가 없다. 우리의 놀이 문화 가운데 “성공과 일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곧 여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여가 없는 일중독과 과욕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는 “활동적인 선택이며 긍정적인 시간 사용이다.”(Ryken, 2012:93).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구조 안에서 금욕적이고 능률적인 정신이 일에 대한 강박증을 부추기면서 오래동안 기독교 내에서도 놀이를 금기시하는 태도가 있어 왔고, 놀이를 부도덕한 행동으로 매도하거나 놀이를 단순히 논다는 측면에서 비생산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왔었기 때문에 스포츠라는 것 또한 이것이 자본의 힘을 빌어 대외적인 경기가 되고 지역과 국가의 경제를 살리는 현대자본의 또 하나의 기동력으로 부상하기까지 스포츠에 대한 시각들도 제한적이고 고정적인 관념 아래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다. 스포츠가 그 본래적 기능과 의미인 인류를 재창조(recreation)으로 인도하는 안식의의미를 상실한 채, 상업적 목적을 위해 도구적으로 사용되면 스포츠의 놀이적 측면과 재충전과 재창조라는 본질이 상실된다. 따라서 스포츠는 놀이 안에서 이미 생산해 놓은 것,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즐기는 법 즉 관조하는 법을 배우고, 재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가운데 안식으로 인도하는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스포츠가 가진 특성 중에서 놀이의 회복은 곧 재창조(recreation)의 목적을 가진다. 이것은 곧 창조의 원리와의 연관되는데 히브리어의 ‘쉬다 안정하다’라는 의미의 안식일을 의미하는 ‘Sabbath’는 히브리어에서 기원되는데 즉 성서에서 창조주가 육일동안의 일을 마치시고 칠일째 이날을 축복하면서 쉬신 것에 기원된다(창 2:2-3). 안식은 따라서 소극적의미의 쉬다는 의미가 아니라 끝없는 일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기쁨을 찾아 놀도록(김옥태, 2002: 37), 안식하도록 되어있는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인류의 본연의 권리를 찾는 것이다. 즉 창조주가 만드신 인간의 독창성과 기발함이 쉽고 여유 안에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놀이이며, 이것이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낼 때 스포츠는 즐겁고 참여하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다.

스포츠는 기계화로 인해 주체성을 상실하고 객체 혹은 타자가 되어버린, 진정한 쉼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인간적인 삶,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전해주고, 상투적이고 상업적인 정신으로 정신활동이 마비된 이들에게 기독교적 가치인 ‘안식과 창조질서의 회복’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해야 이것이 스포츠의 본질적인 측면에 충실한 것이다. 놀이에서 소외되고, 삶의 목적을 상실한 많은 현대 사회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국적과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삶의 기쁨을 잃은 난민들과 생존 경쟁으로 인해 일과 노동으로 이미 창조주를 잊어버린 이들에게 안식을 되살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스포츠가 담당할 수 있는 이 세대의 우선적 과제이다. 현재 삶에 몰두하여, 삶의 소중함과 창조주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인생의 기쁨과 쉼, 안식에 대한 필요성을 증언할 수 있는 역할을 스포츠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스포츠를 선교를 위한 좋은 전략으로 보고 스포츠 선교의 발전 방향성

에 박차를 가하고자하던 시도들은 스포츠와 선교라는 두 개체가 동일한 위치에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고, 스포츠가 선교를 위한 보조적 역할이나 전략으로만 이해되어 이에 대한 한계점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는 선진 문화의 소개를 통해 선교대상자들의 환심을 얻고, 그들에게 동경과 동화의 대상이 되어 선교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치거나, 짧은 시간 안에 선교적 성과를 보기 위한 승리주의적 경쟁적 선교의 결과물로서 나타나 스포츠 선교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와 선교적 도구로서의 한계성에 대한 지적들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를 매개로 한 선교는 선교 현장에서 진정 선교의 본질대로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자하는 목적에 맞게 선교현장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수용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주는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스포츠의 놀이로서의 본질은 선교와 결합되면서 지나친 경쟁적 선교, 승리주의와 도구적 차원의 선교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놀이적 차원, 즐거움과 씬의 일환으로서 스포츠 선교로 선교적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성과위주의 사역이 아닌 선교사와 현지인들이 협력하며 즐기는 선교로 나아갈 수 있다. 즉 스포츠 선교는 일이나 사역이 아니라 ‘놀이’ 라는 언어를 통하여 안식일이 인류를 위하여 재정의되었다는 것, 창조주가 주신 제4계명을 초문화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교회가 전하는 스포츠는 자본주의가 말하는 노동하기 위한 인간, 더 많은 생산의 수단이 되기 위한 소모적 인간의 형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스포츠 선교는 따라서 경쟁으로 인해 소모되고, 일에 지친 선교사들을 비롯하여 모든 스포츠 놀이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함께 공유하고 즐기도록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안식일은 인류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며, 안식을 통해 창조주를 기억하는 증언적 사역을 스포츠 선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역과 개종에 대한 부담감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선교사와 선교대상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자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일이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 창조된 인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목적’을 두게 된다면 스포츠 사역도 이루어야 할 선교적 과제가 아니라 스포츠에 임하는 태도와 목적, 스포츠 사역의 내용들이 곧 그리스도의 증거와 증언적 삶이 될 것이다. 전하는 자가 사역에 지쳐서 증언의 태도와 모습이 치열하지 않도록, 받아들이는 자가 경쟁 안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창조주가 지으신 세계를 즐기고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창조주의 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에 목적을

둔 스포츠 선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스포츠 선교가 가질 수 있는 한계성에 대한 극복: 경쟁과 승리주의

호이징아(Huizinga)는 스포츠가 놀이문화로 자리 잡히면서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게 된 데에는 인류의 파이디아적 측면과 루두스적 측면이 함께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한다. 파이디아란 곧 씬에 대한 욕구와 즉흥성, 희열과 기쁨에 대한 원천적 힘이며, 어려움을 추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중히 기도를 가하는 작용인 루두스 사이에 놓여진 인간은 고등적 차원의 놀이인 스포츠를 발전시켜 가게 된 것이다(곽영근, 2015: 314). 호이징아는 경쟁이 없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유치한 차원의 혹은 넓은 의미의 파이디아와 같은 형국 속에서 루두스라는 규칙과 법칙 있는 경쟁적 차원의 놀이가 발전되어 가는 것에 주목했는데 이것이 스포츠의 경쟁이라는 근원점이 된다. 즉 경쟁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규칙과 룰을 통한 놀이의 질적 차원의 향상, 고등한 차원의 질서 의식을 통해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더 나은 공동의 선인 행복을 추구해가려고 했기 때문에 스포츠 문화를 발전시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루두스적인 측면이 잘못 이해되면 스포츠는 경쟁과 승리주의라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스포츠의 원칙과 규칙들은 인간들이 함께 놀이를 위하여 정한 문화적 측면이며, 이것은 스포츠 경기나 활동들을 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범에 그친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는 언제든지 인간의 탐욕과 시기심, 승리주의적 사고에 의해서 본질이 변질되어 놀이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고, 함께 놀이에 참여하는 이들과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과 자신의 팀을 위해 즉 사적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전체주의적 속성을 갖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자가 약자를, 우수하고 뛰어난 자가 열등한 자에게 정당하게 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스포츠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스포츠는 규칙에 의해 제한된 인원들이, 즉 프로와 아마추어로 혹은 신체적 조건과 활동성량과 재능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들이 스포츠 경기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스포츠를 즐길 수 없고 제한된 조건과 자격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 환대와는 대립되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스포츠의 한계점이 될 수는 없다.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2001:114-115)에 의하면 그것은 상대를 열등화하고 타

자화하는 관습에 잡힌 인식론의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서구의 전통 철학과 인식론 안에서 발견되는 주체가 객체를 타자화 시키고 대상화하는 인식론은 세계에서 주체를 자신으로 인식하고 주체 밖의 세상과 물건, 타자를 정복화하며 식민지화 하는 정당한 근거들을 제공하였다(윤대선, 2009: 39). 그러한 측면에서 스포츠 또한 곧 정치적이며,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신체의 율동성과 자신의 재능 실현, 경쟁을 통해서 우리들은 사회적 공적 영역에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경쟁에서 존중되어야 할 규범과 규칙은 주체에 의해 정해지거나 타자를 이기기 위해 설정해서는 안 된다. 타자가 없으면 경기할 수 없는 즉 타자의 존재 없이는 함께 팀을 이룰 수 없다는 공존의 상태에 대한 받아들임과 타자의 얼굴을 통해서 레비나스가 말한 “무한자” 혹은 신적자아가 내게 준 책임의식의 발로에 의해서(Levinas, 1998:62-63) 스포츠는 문화로서 발전되고 고양시킬 수 있는 미학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스포츠에서 룰이나 규칙의 발견도 주체의 인식론에 근거한 의무론적 자율성에 근거하기보다 타자의 감시에서 벗어나 행동할 수 없는 타자와의 공존성, 상호 관계성, 타자에 대한 배려 윤리 속에서 루두스라는 고차원적 놀이인 스포츠의 기원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의 근원이 되는 루두스는 곧 스포츠의 부정적 기능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를 공유된 문화와 규칙으로 받아들이면서 스포츠의 에토스(ethos)로 자리잡아 갈 수 있다. 함께 뛰는 선수들에 대한 신뢰나 가치로 자리잡아간다면 스포츠는 결코 결과에 환원되어 그 본질이 좌우되지 않는다. 이를 잘 보여주는 스포츠 선교의 한 예로 가나의 모 선교사는 자신의 간증을 통해 아프리카의 한 종족 안에서 20년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사용하던 좋은 축구공을 포기하고, 검은 멍치의 비닐봉투를 들들 말아 만든 현지인들의 축구공으로 수차례 축구를 하면서 현지인들의 축구 룰을 배우면서 그들이 가진 하얀사람(슬리밍가)라는 범주에서 자신이 친구(마이 프렌)라는 신뢰받는 관계로 마을에서 환영받았던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다. 선교사가 들어간 현지에서 이미 사회적 구성원들의 공유 규범으로서 합의나 원칙들이 정해져있을 때, 새로운 스포츠의 룰을 세우려고 급하게 시도하기 보다는 선교사가 자신이 가진 축구의 본질이나 룰에대한 재정립을 통해 우정과 신뢰라는 더 나은 에토스를 실현하게 된 사례인 것이다.

이러한 스포츠 정신은 편협한 인종주의나 우월주의 실현보다는 서로에게 더 보편적

이고 공정한 면에 기초할 수 있으며, 정직과 신뢰 같은 가치관들을 기반으로, 인류라는 본연의 모습 안에서 행복이라는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즉 선교사가 원하는 식의 축구 경기가 아니더라도 선수들의 마음을 얻고, 함께 선수가 되어 떨 때 자아와 타자가 함께 win-win하는 스포츠가 되어 스포츠선교를 결과주의에 환원되는 경쟁적 선교로 치닫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 선교에 있어서 선교사는 나만의 법칙과 룰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의 법칙을 찾아가면서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운동의 기술과 스킬, 혹은 결과의 승패나 만족도와는 상관없이 놀이에 임하는 이들이 문화권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즐길 수 있는 룰이 적용되는 공정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곧 타자라고 불려졌던 상대방과 함께 가는 동반자적 선교이며, 환대 선교의 시작일 것이다.

III.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스포츠 선교의 방향성 재고

그렇다면 선교에 대한 바른 재인식은 스포츠와의 더 나은 관계성과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선교가 주된 목적을 위해 과거 스포츠 선교 역사 가운데 스포츠를 이끌어왔다면 선교에 대한 시각과 바른 이해들은 스포츠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또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교는 그동안 스포츠가 가진 장점들을 활용하여 선교를 위한 도구나 매개체로서 스포츠를 이용하였다. 스포츠는 선진 문화의 하나이며, 타문화권에 전달되는 하나의 선교적 접촉점이었으며, 스포츠 사역의 확대는 곧 선교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한 전략에 그쳤을 뿐 현지인들 혹은 선교 대상자들이라고 여겨지는 타자를 위한 모티브는 많이 배제된 것이 사실이다. 스포츠의 본질이 훼손되고 자본주의의 도구로 상업화되었다면 타락했다고 여기는 것과 같이 선교가 성과주의나 승리주의, 결과주의의 사역으로 가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양상이다. 스포츠와 선교가 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기보다 성급하게 스포츠 선교가 사역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또한 스포츠에 대한 성격적 기원, 놀이에 대한 바른 기원으로 인도한다.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없는 스포츠 선교는 곧 스포츠를 도구화하고 전략화 하는 선교로만 그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선교사가 윤리적 주체로 참여하게 되는 스포츠 선교는 어떠한 성

격을 가져야 할 것인가?

앞서 말한바 있듯이 서구 근대가 지닌 주체 중심주의는 서구 교회가 중심이 되어 전도, 선교할 대상으로서 타자로서 선교 대상 국가들을 이해하고, 개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는데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특히 서구 기독교가 식민지화의 목적으로 혹은 포스트식민주의의 발현으로 계속되는 기독교왕국(Christendom)을 확장해 가는 발로에서 선교 대상 국가들과 복음을 수용하게 되는 문화는 늘 타문화권으로 이해되었다는 점이다(방연상, 2013: 254). 이러한 점에서 선교학은 근대 이후 주체 중심적이며, 자기 주체 안에 간혀져있는 존재론적 차원의 인식론이 바탕이 된 근대철학의 이기심과 편협한 목적성에서 간혀 자유롭지 못했다. 즉 새장에 갇힌 새처럼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 매여, 복음 자체가 가진 생명력과 자유로운 이상을 발휘하도록 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새라고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즉 서구와 비서구, 수용자와 전달자, 선교사와 선교대상자 라는 이분법은 여전히 타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주체의 반대가 되는 혹은 주체와 아무런 상관성을 가지지 못한 개별자로 이해하기 때문에 타자가 없는 주체를 생각하거나 타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주체의 의존성에 대한 자기 신학적 반성이 적었다는 것이다. 나 자신의 주체성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존재론은 곧 타자에 대한 객관화를 가져오고, 주체가 아닌 객체 즉 사물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바깥에 존재하는 타자는 마치 주체의 의지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 마냥 정당화 되면서 주체성이 식민주의, 인종학살 등의 형태 등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개개인 주체의 자율성이 극대화 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신자유주의 속에 드러나는 자본주의의 폐단으로 돈을 수단화 하여 개별자 즉 힘을 가진 주체 즉 강대국을 위시로한 정책이나 협정 등이 유효화 되듯이 약소국과 힘이 없는 타문화권에 복음을 주입하거나 일방적으로 전달해 버리는 선교적 수단으로 취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의 동일화가 지배적 정신구조를 이루면서 우월주의 정복주의, 지배주의나 식민주의적인 사고들이 정치 질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민주의 시대의 선교는 선교지의 이교도를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임희모, 2008: 191).

레비나스는 이러한 자아 중심적인 주체성에 대한 반성(reconsideration)을 이야기하는데, 즉 주체성의 원리는 타자 중심의 윤리적 주체성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Levinas, 1998:72). 다시 말하면 자아중심이 아닌 타자를 존중하고 환대하는 타자

중심의 철학과 사상이 기반이 되어야만 선교 대상자와의 진정한 관계성 속에 “윤리적인 주체성”을 가진 선교함이 되는 것이다(조규청, 1998: 93). 그렇다면 타자와 주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상호 공존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선교 신학적 난제가 될 수 있다. 타자로 인한 수동적 주체가 됨, 타자를 위한 대속적 주체가 됨은 곧 타자를 포섭하고 지배하려는 권력과 힘에 의해 타자를 자신에게 적당한 거리에 두고 객관화 하거나 조건적으로 환대를 베푸는 식의 선교가 아닌, 타자에 의해 기꺼이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타자를 위한 선교 대속적 선교를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자기 포기적인 선교는 곧 역설적인 주체 신학이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수동적 주체가 되더라도 타자로 분리되었던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선교함에 기초를 둔다. 이러한 선교가 곧 교회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이며, 세상을 타자가 아닌 이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할 중심으로 두는 선교적 재정찰의 시작점이다.

에큐메니컬 진영 가운데에도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복음 증언과 선교에 대한 반성들이 20세기 말부터 문서들을 통해서 전해져왔는데 1970년 WCC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발표한 1970년대 “공동의 증언과 개종”이란 문서는 교회가 서로의 형제됨을 인정하고 일치하는 가운데 더 이상 중복적이고 경쟁적인 선교를 할 것을 그만두자는 시도의 첫걸음이 되었다. 이것은 곧 교회들의 증언의 중심이 개교파나 교회의 확장을 위한 전략에 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언이 교회의 본질이 된다는 교회들의 공동성명이다. 또한 이에 더하여 WCC가 1997년에 정리하고 발표한 “신뢰 관계의 선교와 개종주의의 중단”(1997)이란 문서는 동구권 사회가 무너진 이후에 사회가 혼란하고 위태하던 시기에 교회들이 더욱 경쟁적으로 개종을 위한 선교활동을 통해서 동유럽과 중부유럽, 아프리카와 중남미, 아시아에서 긍정적인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보여주었다(황홍렬, 2013:53). 이것은 자신들의 선교활동만이 진정하고, 자신의 교단과 교회만이 참된 가르침과 신앙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우월의식이나 경쟁 가운데 증거하는 일들을 그만두려는 의지적 선택이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듣는 자들의 자유를 존중할 뿐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기 앞서 듣기를 먼저 하며 지속적으로 교회를 갱신하는 것이 곧 증언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교회들이 함께 고백했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복음의 진정성을 전하기보다는 경쟁적으로 복

음증거를 하여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화해를 통해서 공동으로 증언하면서 선교에 대한 신뢰성을 다시 회복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스포츠 선교에 있어서도 선교사는 무엇보다 선교 대상자들을 선택함과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기독교를 전달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확장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1910년 에딘버러 에큐메니컬 선교대회에 참가했던 인도의 아자리아(V.S Azariah) 목사는 이교도인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 선교사들이 현지 사역자들과 사역하는데 있어서 협력의 문제점은, 곧 선교사들이 상호성과 동등성에 기반한 즉 친구적 관계 안에서 사역 안의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점이라고 지적하였다(임희모, 2008:197). 기부자와 수혜자, 혹은 부유한 국가들과 가난한 국가들 상호간의 선교는 여전히 복음과 선교화의 방향성이 동등한 파트너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구조 아래 상호적인 선교가 잘 실현되지 못 하도록 하였다. 1968년 읍살라 총회와 1991, 1993년에 걸쳐 호주에서 열린 에큐메니컬 총회에서 강조하였던 약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역과 참여적인 선교로의 나아감을 위한 논의들 또한 세계 교회들이 이러한 시대적 응답에 대답하기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있으며 여전히 교회들이 선교에 있어서 상호간의 협력 선교와 파트너십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따라서 스포츠 선교에 있어서 선교적 방향성과 본질을 회복하는 길은 곧 교회와 선교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앞서 자신이 선교의 주체자로서 일을 행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던 것에서 벗어나고자 함에서 시작된다.

IV. 21세기 스포츠 선교의 도전: 타자를 위한 환대 선교 ‘난민 선교’

그렇다면 교회들이 함께 20세기 후반부터 고민하고 재조명 하려고하는 선교의 핵심 즉 증언의 본질은 무엇인가? 곧 세상 가운데 놓인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아가페적 사랑(이형기, 2013:409)이며 대속적인 사랑 곧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본질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야할(encounter) 타자, 즉 주류사회에서 소수자로 인식되는 이들이나 외국인 혹은 이방인이라 불릴만한 자들, 문화적 경제적 혜택을 입지 못한 가난한 종족이나 타종교인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얼마나 선교적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시급한 환대 선교의 과제인 난민에 대한 우리들의 이

해는 어떠한가?

난민들은 자국으로부터 인권보호를 받지 못해 다른 나라에서 인권 보호를 받기위해 온 사람들로서 정의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인간으로 가진 최소한의 권리인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찾고 권리를 가진다.’라고 세계인권 선언 14조에서는 밝히고 있다(Carey et al., 2013: 75). 이번 해 UNHCR통계에 의하면 세계 전쟁과 기근, 핍박으로 인해 망명신청 혹은 난민으로 등록한 수는 6530만 명으로 2차 대전 이후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했으며, 그 인구는 전세계인구의 1퍼센트 가량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다(UNHCR, 2016). 팔레스타인과 아프가니스탄 난민 발생 이후 시리아와 이라크 등 다양한 무슬림 국가에서 정치적불안과 ISIS(자칭 이슬람 국가)의 공격 등 종교적인 이유로 기하급수적인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은 여전히 받아주는 국가들이 없어서 인접하는 국가인 터키나 유럽 쪽으로 불법 체류나 보트 피플을 통한 망명신청으로 세계의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그러나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앞장서야할 서구 사회 가운데에도 여전히 난민에 대한 인식은 냉담하다. 서구 국가 가운데 호주는 시리아 난민을 2015년 9월부터 12만명을 수용하기로 정부에서 약속했으나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 섬에서 난민수용소에 머물게 방치한 채 2016년 현재까지 26명만 국내에 정착시키는 등 난민들에 대한 냉담한 반응을 보였으며, 무엇보다 2016년 4월과 5월에는 난민들이 대우 개선을 위해 폭동을 하다가 그 중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하여 무고한 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일들도 발생하여 큰 파동이 일도 있었다(Hasham, 2016). 세계는 난민에 대한 인식을 시작했고, 세계 교회들도 시급함에 눈을 뜨면서 선교의 방향성도 타자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선교적 과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필자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타자이며 소수자인 곧 전쟁과 재난으로 인한 디아스포라 난민들을 섬기는 일이 스포츠 선교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는 세계선교적 차원에서도 교회가 섬겨야할 우선순위를 과거 선교사들이 집중되어있던 지역권에서 분산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디아스포라’로 선교의 중심점과 그 사역들을 옮길 필요성이 개진된 것과는 같은 맥락이다.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로 국적을 잃고, 난민이 되거나 이방인, 소수자로 인식되는 이들이 교회의 증언에서 오랫동안 배제되고 있었지만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는다는 측면에서 3차 로잔대회 가운데에도 대두된 문제이기도 하다(한국로잔연구교수회, 2015:205-209).

그러한 면에서 필자는 스포츠가 이러한 환대 선교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스포츠 선교는 스포츠의 본연의 정신을 통해 선교에 시사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들 뿐 아니라 레비나스가 이야기한 타자에 대한 윤리성과 책임성(Levinas, 2001:105-109)에 근거하여 스포츠 게임과 놀이 문화 안으로 타자들을 수용하는 선교를 실천해갈 수 있다. 즉 스포츠 선교의 출발점은 곧 선교사 자신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그들의 필요에 대한 적극적 인식에서 시작되어 이웃을 초청함과 환대함에서 시작된다. ‘타자’가 없으면 ‘나’라는 자아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겸손한 태도를 통해 타자의 존재들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자아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수동적 주체의식이 선교사의 모습에서 발견될 때 그것은 선교사가 주체가 된 선교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타자에 의한 타자의 선교’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선교의 모라토리움을 이야기하거나 교회가 주체됨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의 주체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주권을 내어드리는 과정으로서 자연스럽게 자기 내려놓음 이라고 본다.

섬김을 위한, 타자를 위한 선교, 이러한 환대 선교라는 개념이 스포츠 선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환대 가운데 우리는 선교의 본질인 아가페 하나님의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함께 누리갈 수 있기 때문이다. “환대 선교”는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자신의 집을 방문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환대하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여 하나님이 직접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을 환대한 것과 같다. 아들이 자기의 비움과 희생을 통해 인류를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교하였듯이 교회는 주체로서 타자를 지배하기 위하여 즉 타문화권에 지배자가 되려고 하거나 힘없는 선교대상자들에게 선진 문화를 수용하고 동일화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임희모, 2008:205), 세계 가운데 타자가 된 난민, 실향민, 외국인들을 위해 그들의 고통을 무한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대속적주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 증언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타자를 위한 환대 선교이며, 디아스포라 선교는 스포츠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을까? 필자는 요르단 암만과 자르카 지역, 레바논의 두로 지역 등 난민 사역이 활발한 곳으로 선교사들을 돕는 사역에 참여했었던 경험이 있다. 2013년 6월과 2014년 12월에 걸쳐서 두 차례 시리아 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러한 환대 선교의 중요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었는데, 환대 선

교는 곧 선교사의 필요가 아닌 선교대상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일반 선교와 다른 점을 가진다. 요르단의 자타리 지역 난민 캠프와 레바논의 두로 등에서 만난 난민들을 비롯하여 전쟁으로 인해 흩어진 이라크 난민들은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자이며, 생존과 권리가 보장되기 어려운 국적을 잃어버린 상태로 방문하는 국가들마다 타자로 취급을 받거나 냉대당하고 있었다. 선교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데 어린이 학교 사역과 여성 난민 사역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차원의 구호품 분배나 의료 선교 등 다양한 형태의 선교가 진행되고 있었다.

요르단과 레바논을 비롯하여 터키와 북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 아이들은 일반 학생들이 다니는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와 구호단체가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에 다니고 이를 통해 선교사가 전해준 복음도 접하는 기회들을 얻고 있다. 학교 교과 과정과 학습 환경의 열악한 조건 가운데 스포츠는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무슬림아이들과 여성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주요 사역의 내용이다. 시니어 선교사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NGO단체들과 지역교회들이 스포츠 선교에 앞장서고 있었지만 스포츠 선교의 작은 사례로는 난민 캠프 중에서 필자가 방문한 사역지를 들 수 있다. 고신대학교에서는 태권도선교학과를 졸업한 한 쌍의 신혼부부가 시리아의 자타리 난민 캠프에 들어가서 시니어 선교사를 도와서 4개월 정도(9월-12월) 단기로 태권도 사역을 한 사례이다. 이 부부는 “키미와 나라”라고 불리면서 시리아 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사역을 했으며 레바논 두로 지역에서도 남은 기간 동안 1년의 단기 선교 중에서 태권도를 통해 난민 가운데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NGO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기아대책이 요르단의 자타리 캠프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태권도를 통한 난민 선교의 문을 여는 기회를 제공하였다(현한나 2014:431).

앞서 말한 대로 스포츠는 곧 인류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양태이며,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어떠한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규칙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상하계급적 질서보다는 평등하게 함께 즐거움과 긴장감을 가지고 플레이(play)하도록 인생 본연의 가치에 목적을 두도록 고무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선교에서 이러한 초문화적인 공동의 룰과 법칙이 적용되는 놀이를 배워가는 것은 무엇보다 경기에 임하거나 관중이 되는 모든 이들에게 소속감과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한 면에서 스포츠 선교는 난민들이 공적인

영역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함께 하는 것을 배우는 책임성 있는 주체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소속감을 주게 한다.

한나 아렌트(Hanna Arendt)가 말한 바에 의하면 스포츠는 곧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해야 생계를 유지할까? 하는 경쟁적이고 필요에 의해 붙들려야하는 이해관계와 생존이란 사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공동선 혹은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공적인 영역으로의 전환을 하는 기능이 있다. 즉 사적 영역에 붙들려 더 풍요로운 삶과 공공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폴리스 즉 시민으로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다. 사적 영역 즉 절박한 필연성의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 타인과의 교제, 자연과의 교제, 창조주와의 교제 안으로 즉 공동의 선과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호모 폴리티쿠스로서 공적영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 나은 목적을 향해 함께 노력하고 나아가는 차원을 배워가기 때문에 룰이 적용되는 한 그 팀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공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스포츠 선교는 일상의 일탈기능을 통해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이들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행위를 실천해 낼 수 있는 공동의 장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난민들에게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긍정적 기능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사적 영역에서 삶의 동기부여를 상실한 많은 난민들과 정부가 보장해 주지 않는 시민이라는 권리를 스포츠라는 매체를 통해 공적 영역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참여자들에게 고무적이다. 따라서 스포츠 선교는 놀이적 기능에 더하여, 사회적 공적 정체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선교현장에서 소외된 자들, 타자로 치부되는 소수자들에게 윤리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곽영근, 2015:311).

스포츠 선교는 선교사의 목적 달성이 아닌, 타자로 불려졌던 선교 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목적과 삶의 정체성을 주는 의미의 선교로 전환 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세계 미전도 종족과 21세기 남은 선교적 사업의 완수를 위한 긴급성과 필요성 때문에 총소리가 울리던 급히 달려 나가야하는 선교적 경쟁의 위치에서 내려와, 선교사 자신이 재충전되고, 사역의 기쁨이 재발견되는 가운데, 미래의 방향을 재점검해 보는 관점이 곧 환대선교가 될 것이다. ‘환대 선교’, 즉 타자를 이웃으로 섬기고 나와 타인이라는 경계를 깨는 ‘섬김’이라는 선교적 본연의 자세에 가장 충실한 모델이 곧 스포츠 선교의 나아갈 방향이며 디아스포라 선교이다. 이것은 마치 오랜 과정 시행착오를 겪은 숙련된 선수들이 이인삼각 경기에서 함께 호흡하는 기쁨을 누리며 경기에 임하는 것과 같은 성

과가 될 수 있다. 스포츠라는 경기와 승부를 통한 인간 본연의 즐거움과 예술 활동이 복음 전파와 개종이라는 한 목표만을 위해 진행되지 않고, 함께 가는 과정 가운데 우정과 신뢰가 쌓여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가는 것이다.

V. 나가며

앞서 필자는 스포츠 선교에 있어서 스포츠가 단지 세계선교를 위한 전략이나 도구로서 즉 선교의 시종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한계성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그것은 선교와 스포츠 서로의 본질에 대한 깊은 바탕 없이 필요에 의한 사역으로 짧은 시간 확장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학문적 불연속성과 본질의 차이점에 대한 재고 없이 선교적성과를 위하여 갑자기 뽑힌 아마추어 이인삼각경기 선수처럼 뛰기보다는 더 나은 도약을 위하여 스포츠 선교에 대한 학문적 점검과 사역에 대한 반성,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스포츠 선교는 세계 선교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선교적 전략에만 그친 나머지 스포츠 선교만이 가질 수 있는 사역적 특성과 목적성에 대한 정당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스포츠와 선교가 한 방향성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있어서 당면할 수 있는 난제들에 대해 어떻게 극복해갈 것인가 혹은 스포츠와 선교가함께 결합되면서 서로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력 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리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포츠 선교는 이를 통해 기존 전통 선교에서 행해져 왔던 타자를 배제한 선교에서 벗어나 타자를 이웃으로 품는 환대하는 선교로 방향을 전환해야한다. 스포츠 선교의 앞날에는 스스로의 목표달성 보다는 ‘other’s right’ 즉 타자의 권리를 회복 하게하고, other’s mission타자의 주체적 선교를 기뻐하는 환대 선교의 과제들이 많이 남았다. 필자를 위시로 하여 더 많은 선교 학자들이 스포츠와 선교에 대한 폭넓은 측면의 연구를 통해 선교 단체와 교회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장에서 더욱 긴박감 있고 즐거운 스포츠 선교의 장을 이루어가도록 그 모티브와 사역적측면의 연결고리를 강화시키고, 스포츠 선교의 당위성과 성과적 측면에 대해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학문적이

고 이론적인 토대들을 많이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것이 높고 즐길 수 있는 안식이기예,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욱 드러나며, 문화들의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고,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이 회복되어, 선교의 본질 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 소망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재원 (2013). “스포츠전문인 사역의 이해와 방향: 성경적 원리를 중심으로.” 『신학과 선교』. 42. 175-213.
- 곽영근 (2015). “도덕교육에서의 호모루덴스.” 하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309-21.
- 김옥태 (2002). “기독교안식일과여가.” 『움직인의 철학: 한국 체육 철학회지』. 10(2). 34-48.
- 나가마사마사키. 김정원 역 (2015). 『왜 지금 한나아렌트를 읽어야 하는가?』. 서울: 갈라파고스.
- 라이큰, 리랜드 (Ryken, Leland) (2012). “일과 여가 (Work and leisure).” 『상담과 선교』. 75(12). 83-100.
- 방연상 (2013). “탈근대적 선교신학의 주체를 향하여-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신학연구』. 63. 253-79.
- 송세영(2014). <http://news.knib.co.kr/article/view.asp?arcid=0007896325&code=23111114>. (검색일 2016.10.20.) 국민일보 2014.1.1일자. “월드디아코니아, 요르단 ‘시리아난민 캠프’ 구호사역현장.”
- 신성환 (2009). “디지털호모루덴스, 놀이하는 삶과 문화적 혁신: 기술과 놀이에 대한 새로운 자의식 및 소설적 형상화.” 『한국언어문화』. 38.189-220.
- 윤대선 (2009). 『레비나스의타자철학: 소통과 초월의 윤리를 찾아서』. 서울: 문예출판사.
- 이완택 (1991). “특집: 91년도와 특수선교; 스포츠 선교와 그 성과.” 『활천』. 454. 12-15.
- 이정기 (2012). “스포츠를 통한 세계선교전략연구.” 『신앙과 학문』. 17(1). 183-215.
- 이형기 (2013). 『세계교회협의회와 신학』. 성남: 북코리아.
- 임석원 외 (2010). “스포츠 경쟁의 도덕적 정당화담론.” 『철학탐구』. 27. 225-60.
- 임희모 (2008). “타자와환대의선교-레비나스 철학과 선교 신학의 만남.”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6. 189-211.
- 조규청 (1998). “스포츠 예술에 관한 연구(한국 기독교 문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한국스포츠리서치』. 9(2). 83-95.
- _____ (2007). “움직임 예술교육과 기독교문화와의 상관성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8(1). 343-52.
- 한국로잔교수연구회 (2015).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 운동의 헌신과 실천: 로잔 운동과 선교 신학』. 서울: 케노시스.

- 허성업 (1998). “현장: 사회선교단; 스포츠를 통해 복음 전도 사역하는 한국 스포츠 선교회.” 『활천』. 530. 94-98.
- 현한나 (2014). “시리아 난민과 디아스포라선교.” 『선교신학』. 37. 407-48.
- 황홍렬 (2013). “WCC 개종 전도 금지논란과 그 대안으로서의 ‘공동의증언.’” 대한 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657(9). 47 - 55.
- Caillois, R. (2006). “The Definition of Play, The classification of Games.” in Salen, Katie and Zimmerman, Eric ed (2006). *The GameDesign Reader: A Rules of Play Anthology-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 Carey, S. C., Gibney, M., and Steven C. P., (2013). 임상순 역. 『인권의정치학: 국가권력과 인권』. 서울: 북스힐.
- Hasham, N. (2016). <http://www.smh.com.au/federal-politics/political-news/canada-has-rescued-800-times-more-syrian-refugees-than-australia-figures-show-20160217-gmw7dz.html>.(검색일2016.10.20) The Sydney Morning Herald. 2016. 2. 17일자. “Canada Has Rescued 800 Times More Syrian Refugees than Australia, Figures Show.”
- Huizinga, J., (1998).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Element in Culture*. London: Routledge.
- Levinas, E. (1998). *Of God Who comes to Mind*. Trans. Bettina Bergo Carlifonia: Stand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Is it Rigtious to be? Interviews withEmmanuel Levinas*. Ed. Jill Robins. Carlifonia: Standford University Press.
- Linder, S. B. (1970).*The Harried Leisure Clas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ttp://www.hanh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49844>
(검색일 2016.10.28) 호주 한호일보. 2016. 10. 13일자. “다문화 이야기-가나 선교사 L의 사례.”

Abstract

The direction of Sports Mission in relation to Hospitality Mission

Hanna Hyun (Sydney College of Divinity)

Sports mission has become a significant part of Korean Christian mission and it has been understood as the powerful medium of the missionaries to impact the world for Jesus Christ. The Sports mission also has been evaluated as one of the efficient and influential tool as its missional result. It challenged missionaries in the field of professional, college, high school and youth levels to glorify God and to focus on serving local communities by equipping and encouraging people to become disciples of Christ.

In Korea, hosting the 1988 Olympics presented an opportunity to take the advantages of World Mission, and during the period 1980-90, the purpose of addressing the Christian mission was to accelerate the demonstration of the Gospel where it had not yet been proclaimed. Sports missionaries and ministers believe that the Church is also called to do the unfinished task of the Great commission; sports can be the effective way to serve the unengaged people in the world. However, those belonging to the Christian mission overlook the essence of sports, more focus on the numerical increase as the symbolic illustrations of successful ministries, and compete amongst Christian missionaries.

In order to extend the narrow understanding of sports mission, this paper suggests the redefined concept of sports mission in terms of 'play.' Human being are designed to 'play and enjoy' sports and Christian mission is aimed to serve the people. Those two estranged concepts must be integrated and reinforced for the future direction of sports mission.

Moreover, this paper offers a critique of the outdated role of Sports Mission and, in particular, a critique of the disconnect between the

practice of Sports Mission and what we consider to be the urgent issue of our era, Diaspora and Hospitality. Overall, this paper recommends the wholistic direction of Sports Mission in relation to the significance of Hospitality Mission.

Key Words: Sports Mission, Hospitality Mission, Refugee Mission, Diaspora, The Ethics of Others